‘타임오프’ 반목 기아 노사 내일 첫 협상

타결땐 완성차업계 24년만에 ‘무파업’

현대차 등 4개사 무분규 임협 마무리

기아차를 제외한 완성차 4개사의 무분규 타결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타임오프제 시행을 둘러싸고 대립 중인 기아차 노사가 11일 처음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기로 해 주목된다.

사측이 타임오프제 관련 현안과 임금 및 근로조건을 별도 논의하겠다는 기존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협상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단 대화의 물꼬가 트였다는 점에서 협상진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9일 기아차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최근까지 쌍용차, 현대차, GM대우가 차례로 분규 없이 임금협상을 타결했고, 르노삼성차도 사측과 사원대표위원회가 무난히 협상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아차 노사협상이 타결되면 국내 완성차 업계는 1987년 현대차와 쌍용차 노조가 설립된 이후 24년 만에 처음으로 ‘파업 없는 한 해’를 보내게 된다.

기아차는 1960년부터 노조가 있었지만,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은 1991년으로, 이후 19년간 단 한 차례도 파업이 없는 해가 없었다. 사측이 주장하는 19년간 누적 손실액은 6조 4407억원에 달한다.

특히 그동안 노사협상 상견례도 없었던 기아차 노조가 처음으로 무릎을 맞대기로 해 완성차 업계의 사상 첫 무파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아차 사측은 그동안 타임오프제의 시행 안을 먼저 논의한 뒤 임단협을 진행하자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노조는 전임자 수 유지와 임금 지급 등 기존 방식을 유지하는 안을 포함하자는 안을 굽히지 않아 양측은 평행선을 달렸다.

노조는 지난 6월 하순에 쟁의발생을 결의한 뒤 특근과 잔업을 거부해 현재까지 2만8000여대의 생산 차질을 빚었다.

이에 따라 양측은 현재까지 임단협을 위한 상견례조차 못하고 있으며, 노조는 지난 6월 쟁의발생을 결의한 뒤 특근과 잔업을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사측이 정부의 교섭 재개 및 성실교섭 촉구를 받아들여 9일 오전 노조에 공문을 보내 개시를 요청하자 노조가 이를 수용하면서 11일 경기도 상소하리공장에서 상견례와 함께 협상이 이뤄지게 됐다.

협상에서 사측은 법 기준을 위반하는 전임자 관련 요구안과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요구안을 명확히 구분해 교섭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협상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노조도 9일 쟁의 대책위소식지에서 “사측이 또다시 교섭에 집중하지 않고 경영진 눈치보기로 일관하면 노조는 강력한 투쟁 전술을 택할 것”이라고 성실 교섭을 촉구했다.

이런 상황에도 긍정적인 전망이 없지는 않다. 무엇보다 현대차의 2년 연속 무분규 타결에 자극받은 사측이 무파업 시 현대차 수준의 파격적인 보상을 제안한데다 최근의 노사 갈등이 ‘잘 나가는’ 기아차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대내외의 비난을 노사 모두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기아차 광주공장 관계자는 “타임오프제 시행과 관련해 법을 준수하겠다는 회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노사간 대화의 장이 마련됐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신나는 우주과학체험 9일 서울 현대백화점 미아점에서 열리고 있는 ‘우주과학체험전’을 찾은 어린이들이 우주복과 우주선 내부 시설의 원리를 직접 체험해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연합뉴스

올 상반기 주택 15만가구 준공

아파트가 11만가구 … 전체 76% 차지

올해 상반기에 전국적으로 준공허가를 받은 주택이 총 15만 가구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주택 준공실적이 정부의 공식 통계로 집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6월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HIS)을 구축하고 전국의 지자체를 통해 주택건설 준공실적을 처음으로 집계한 결과 올 들어 6월 말까지 총 15만795가구가 전국에서 준공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HIS는 부동산 통계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주택건설 인허가부터 착공, 준공까지 주택 생산 전 과정의 실적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집계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주택 준공통계는 주택 인허가 실적과 달리 실제 입주가 가능한 완성품 물량을 집계한 것이어서 주택 공급물량 분석에 유용하게 사용될 전망이다.

국토부의 준공통계는 사업주체, 유형, 전용면적, 지역별 등으로 세분화해 발표된다. 올해 상반기까지 집계된 준공 물량을 보면 전체 15만795가구 중 76%인 11만4천915가구가 아파트로 조사됐다.

이어 다세대주택이 1만5553가구, 단독주택 1만2432가구, 다가구주택 6368동(가구수 기준 4만7966가구), 연립주택 1527가구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6만819가구로 가장 많고, 서울 1만8508가구, 충남 1만1241가구, 경남 1만135가구, 경북 9502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中企노조 83% “타임오프제 이후도 전임자수 그대로”

중기중앙회 조사 … 영향 미미

법정 한도에 따라 노조 전임자 수를 제한하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중소기업들은 80% 이상이 노조 전임자 수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제도가 대기업의 노조 전임자 수를 대폭 줄이는 효과를 내지만 중소 사업장에는 별 영향이 없어 업체의 경영부담이 여전하다고 중소기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노조가 있는 중소기업 303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타임오프제에 맞춰 새롭게 단체협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중 83.3%가 현행 노조 전임자 수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중소기업 가운데 80.5%가 ‘협약 이후에도 현행 노조 전임자 수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타임오프제를 도입한 사업장의 전임자 수에는 약간의 변화만 있었다고 중앙회는 전했다.

완전 전임자 수는 0.99명에서 0.83명으로 줄었고 부분 전임자 수는 0.83명에서 0.71명으로 감소했다.

완전 전임자 수가 있는 사업장은 68.1%에서 63.9%로 줄어든 반면 부분 전임자 수가 있는 사업장은 44.4%에서 47.2%로 비중이 늘어 상근 전임자가 이른바 파트타임 전임자로 바뀌는 모습을 보였다.

타임오프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은 대부분(91.7%)이 정부에서 고시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었다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중소기업들은 노조의 소속에 따라 엇갈린 협상 전망을 내놨다.

노조가 한국노총에 속한 중소기업은 70.5%가 ‘협상이 원만할 것’이라고 보는 반면 민주노총 소속 노조를 둔 업체는 27.3%만이 협상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연합뉴스

한국 10억달러 이상 ‘억만장자’ 10명

상장사 보유지분 가치 평가 … 이건희 회장 1위

상장사 보유 지분 가치로만 10억달러를 넘은 ‘억만장자’가 10명, 100만달러 이상인 ‘백만장자’가 979명으로 조사됐다.

9일 재벌닷컴이 1781개 상장사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지분 가치를 원·달러 환율 1,163원을 적용해 지난 6일 종가로 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상장사 지분 가치가 100만달러 이상을 기록한 백만장자 979명 가운데 여성은 전체의 11.7%인 115명이었고, 코스닥 대주주는 369명으로 전체의 37.7%를 차지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지분가치가 75억8400만달러를 기록해 한국 최고 주식부자 자리를 지켰다.

이 회장이 보유한 상장사 종목별 가치는 삼성생명이 40억3400만달러로 가장 많았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47억6200만달러로 2위였고, 현대중공업 최대주주인 정몽준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19억8000만달러로 3위,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17억4300만달러로 4위였다.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은 16억3800만달러로 5위를 차지하며 정몽구 회장과 함께 부자(父子) 억만장자에 올랐고,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은 16억1700만달러로 유통업계의 최고 주식부자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42만1천㎡ ‘토지리턴제’ 공급

LH 광주전남지역본부 … 택지는 16일부터 신청 받아

▲‘토지리턴제’=토지를 산 고객이 일정 기간(1~2년)이 지난 뒤 해약을 요구할 때 계약금은 원금으로, 중도금은 법정이자(현행 연 5%)를 가산해 환급해 주는 토지 판매 제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지역본부는 9일 “토지 333필지(42만1천㎡)를 ‘토지리턴제’를 적용해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토지는 광주 수완지구 공동주택용지, 상업용지, 근린생활용지, 주차장·주유소·단독주택용지, 광주 신창지구 근린생활용지, 준주거·단독주택지, 광주 일곡지구 단독주택지와 광주 첨단지구 상업용지 등 광주·전남지역 10개 사업지구의 보유 토지다.

공동주택용지와 단독주택용지의 추첨 분양은 오는 16일부터 신청을 받아 18일 추첨을 하며 상업용지의 입찰 분양은 18일부터 신청을 받아 20일에 입찰할 예정이다.

분양과 입찰은 인터넷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h.or.kr)에서만 이뤄지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토지공급팀(062-360-3163)에 문의하면 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코스피지수	1,790.17 (+6.34)
▲ 코스닥지수	483.87 (+5.40)
▲ 금리 (국고채 3년)	3.92% (+0.03)
▼ 원·달러 환율	1,160.10원 (-1.7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